



제1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10월 1일 개막 ‘책, 삶을 살피다’ 주제로 홍대거리서 펼쳐지는 책축제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대표이사 이채관)는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홍익대학교 앞 주차장 거리 및 갤러리, 대안 공간 등에서 제1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자료제공 |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제1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에서는 ‘책, 삶을 살피다 - 사유의 복원’이라는 주제 아래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읽다’의 저자 와타나베 이타루,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여성학자 정희진, 효암학원 이사장 채현국, 건축가 조성룡, 셰프 박찬일, 대중음악 평론가 강현, 시인 김행숙, 이영광, 오은 등이 참여하는 대중강연이 열린다. 이외에도 출판사 거리도서전, 야외 공연, 전시, 어린이책놀이터, 시낭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홍대 앞 인디문화 20년을 기념해 ‘인디·독립·대안’을 주제로 음악포럼, 독립출판물 전시와 공연 등을 함께 하며, 신진 그림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그림책·삽화 일러스트 공모전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

저자 강연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2015년 출판인들이 뽑은 숨어있는 최고의 책 1위를 비롯해 수많은 화제를 모았던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저자 와타나베 이타루가 내한해 이야기를 나눈다. 천연균을 연구했던 할아버지, 마르크스를 탐닉했던 아버지. 이들의 역량을 물려받은 그가 ‘작아도 진정한 자기 일’을 하기 위해 빵집을 열고 양심 있는 자본가로서 고민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노동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리즈 강연 이 시대 어른에게 듣는다

“꼰대는 성장을 멈춘 사람이고, 어른은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이다” 어른과 꼰대를 나누어 사고하는 지금의 젊은이들과 ‘밤이 선생이다’의 저자 황현산씨가 만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대중강연이 10월 2일 열린다. 10월 3일에는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온 삶의 언어를 강연을 통해 전하며, 10월 4일에는 조성룡 건축가와 함께 누구에게나 열린 사유의 공간으로서의 건축과 도시 역사를 되짚어 본다.

시리즈 강연_ 혐오와 공감

우리 사회에 지역, 인종, 성별, 성적취향 등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지고 있다. 10월 1일 김찬호 교수가 '모멸을 원하는 사회를 해부한다', 10월 2일 작가이자 여성학자인 정희진이 '여성혐오, 나아가 혐오사회를 들여다본다'를 주제로 대중강연이 진행된다. 10월 4일에는 젊은 지성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혐오와 공감' 포럼이 진행된다.

릴레이 강연_ DPPA와 함께하는 백인백책 강연회

대형 출판사 위주의 출판 풍토에서 소외되기 쉬운 작은 출판사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마포출판진흥지구협의회가 후원하는 일인출판사 저자 강연 시리즈다. 10월 1일 알렙출판사 대표인 조영남의 '1인 출판사 창업이야기'를 시작으로, 2일에는 김정선 작가의 '맛있는 우리말 움직씨 밥상-동사의 맛', 3일에는 만화가이자 숲연구가인 황경택 작가의 '오늘은 빨간 열매를 주웠습니다' 자연관찰 드로잉 강연, 박찬일 셰프가 '일본 요리의 전설' 로산진의 간간한 요리철학을 소개하는 강연이 연달아 진행된다. 4일에는 문화재 반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혜문 스님의 '우리 궁궐의 비밀' 강연을 끝으로 총 5개의 릴레이강연이 마무리된다.

시낭독회_ 시인은 살아있다

인생의 회로애락이 깃든 시를 어떻게 오래오래 우리 삶의 시간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 실천의 하나로 김수영, 이상 등 한국 현대시인의 작품을 후배 시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낭독하고 타 장르와 시가 결합된 공연을 음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0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연극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요',

낭독회 '젊은 세대가 말하는 이상·김수영', 음악공연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등이 진행된다.

거리도서전

80여 개의 출판도서부스로 구성되어 다양한 주제의 서적을 판매하는 자리로, 지난 10년간 강세를 보여온 인문, 사회과학, 예술분야의 서적이 올해도 다수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큰 출판사 위주로 빠르게 회전하는 출판시장 구조에서 묵묵히 작고 강한 책을 만드는 1인 출판사를 알리기 위한 '백인백책' 부스가 마련되고, 구매자에게 알라딘 굿즈(셜록 북마크, 글래스 보틀 등)를 선물한다.

전시_ 생각의 꼬리를 물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주제 전시로 국내의 대표적인 캘리그래피 아티스트 강병인 작가와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슬통'의 작가들이 해석한 방식을 다양하게 펼쳐 보이는 캘리그래피 전시가 열린다.

전시_ 나는 독립출판자다

6~7년전부터 태동하기 시작해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독립출판은 기성 출판이 담지 못하는 독특한 감성, 태도를 가진 책들을 퍼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후원한다.

한편 와우책문화예술센터의 모든 강연은 홈페이지(wowbookfest.com)를 통해 사전에 무료로 참가신청(일부 강연 유료)을 할 수 있다.



1. 제1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포스터 2. 자외의대화 3. 거리도서전 전경 4. 사랑의책꽃이 행사